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27	10. 04	10. 11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최종열 성도
성 경 봉 독	정해욱 형제	김정규 형제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9월의 축복 인사 : 믿음으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선교훈련(초기 7교회, 바울사도 1차 전도지)-27년2월23일~3월2일(7박8일, 튀르키예) 신청-9월27일(주일)까지. 최상우 청년회 회장께
4. 2026년 추수감사주일 - 10월 4일 주일에 드립니다.
5. 추석 - 9월 24~26일은 고유의 명절 추석기간입니다.
6.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20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윤선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계 2 : 12 - 17(신p 400) (Offenbarung 2:12~17)	이윤선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을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2월 23~3월2일까지의 선교훈련을 위하여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는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베르가마(Bergama)에 해당하는 곳으로, 당시 우상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아시고 그들의 믿음도 아십니다.

1.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성도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전승에서는 안디바를 초기 아시아 지역의 첫 순교자로 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2. 핍박뿐 아니라 세상과의 타협도 물리쳐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핍박은 견디었지만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숭배와 죄에 타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성공과 돈과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3.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만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며, 잘못된 길에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사람의 인정과 예수님의 인정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삶에서 쉽게 타협하는 약점을 나눠 보세요.